

진흥회 행보 “화합분위기 냉각”

종단협 정총 진흥회측 불참 ‘안팎’

지난 1월30일 종단협의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종단협의회(회장 월주)와 종단진흥회(회장 일공)가 분리, 재결합이나 기로에 섰다.

월주스님은 이날 총회에서 종단진흥회에 대해 ‘목빈대처(默賓對處)’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종단진흥회) 없는 것만 못하지만 종단협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신교의 교회협의회와 교회연합회가 별도로 조직돼 활동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그쪽(종단진흥회)이 발전하면 크게 보아 불교발전이지 않느냐”며 이후로도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것에 유념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종단협의회와 종단진흥회의 분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주스님의 이같은 선언은 종단진흥회에 가입된 종단이 20여개에 이르고 있

협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물론 종단진흥회에 대해 ‘분과행위’라고 규정하고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능력이 되면 수행 포교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또다른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조계종 독주 이유 내세워... ‘초파일 봉축’ 고비 월주스님 ‘목빈대처’ 일관 사실상 분리 인정

으나, 불교내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조계종이나 종단협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주스님은 “정부나 사회단체 정당 등에서는 사안발생시 종단협과 조계종 등 큰 종단과

월주스님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분열상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선주자들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매달리는 행위는 불교의 자주성을 핑계치는 행위”라며 “11월쯤 가면 어느 후보가 불교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후보인지 밝혀질 것이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면 된다”고 강조, “대선준비론”으로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월주스님의 목빈대처에 대해 종단진흥회측에서도 굳이 대항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총회 사무총장 남정성(총회총무위원장)은 “총회장소를 종단협의회 사무실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일인 반구 답변도 없어 서운함이 크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진흥회는 회의장소를 조계종 총무원청사로 정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렇지 않아도 조계종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벌려온 진흥회는 회의 장소를 변경치 않을 경우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불참은 현실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종단협의회 97년 정기총회에는 종단진흥회에 참여하고 있는 천태종 원용종 총회 등 종단협의회 가입종단 가운데 절반의 종단이 불참했다.

종단진흥회는 지난해 4월 창립 이후 종단협의회 외의 또다른 종단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크게 내세우는 이유는 조계종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 독주 때문에 또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은 불교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비판이 오히려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단진흥회는 또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비용의 조계종 전담은 초파일 봉축행사를 조계종 위주의 행사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초파일 봉축행사의 별도 봉행 뜻을 내비치고 있다. 조계종 압박용이나, 아니면 결별을 위한 명분쌓기나 의 판단은 아직 이르다. 따라서 종단협의회와 종단진흥회의 분리, 재결합이나는 초파일을 막바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조계종 독주론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모종의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월주스님이 일방적인 친여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의 작용이 불교계 분열상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까지 분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성운 기자



○지난 1월29일 법륜사 대웅전에서 열린 청불회 법회에서 법정스님이 법어를 통해 현 시국과 관련 정부에 대해 따듯한 충고를 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노동법 개정 절차 지켜야”

법정스님 청불회 초청법문

청와대 불교신자들의 신행모임인 청불회 정기법회에서 법정스님이 노동법 시국과 관련, 정부에 대해 따듯한 충고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월29일 서울 법륜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법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노동법 안기부법을 비롯 11개 법안을 번복처리했다. 라디오뉴스를 듣고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앞으로 시급했구나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처리했다면, 일방적 강행의 결과도 예상하지 못했는가”고 질책했다.

법정스님은 이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번복처리한 것은 정치적 미숙”이라고 지적하고 “목적은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단과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낱알의 과정이 곧 목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와대의 노동 관련 주무 비서관인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을 비롯 배재욱 사정비서관 등 1백여명의 청불회 회원이 참석했다.

이제앞서 법정스님은 법어 서두에서 “여러분들의 뜻이 청정하다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청불회를 창립했다는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며 회원들을 격려했기도 했다.

시론

‘세계의 쓰레기통’ 북한

1월 16일 외무부는 북한이 작년 11월 대만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어 대만산 핵쓰레기 6만 드럼을 북한에 반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대만으로부터 가져온 핵쓰레기 6만 드럼은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핵쓰레기의 양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받을 돈은 6,900만달러에 불과하다. 과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며, 자신의 핵 폐기물들을 남의 땅에다 가져다 버리려는 대만은 양심이 있는 나라인가?

금수강산 核오염 안된다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문제는 여러 곳으로부터 산발적 반대에 봉착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형의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선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동조도 얻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미 북한기술자 여러 명이 핵쓰레기를 선적하기 위해 대만에 도착했으며 핵쓰레기는 남포항으로 운송된 후 황해도로 폐광에 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적할 수 있는 안전한 배도 없고 더구나 붕괴의 위험이 가장 높아 위험하기 그 지없는 폐광에 핵쓰레기를 매립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대만 의 교부는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의 강력한 외교공세와 관계없이 이를 강행할 것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이전계약은 순수히 상업 행위라고 전제하였다.

사실 북한은 이미 93년부터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부터 수천 수만 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반입해 왔다. 톤당 200불 정도를 받고 월 1만톤 이상을 반입하고 있다하니 북한은 이미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슨 종류의 쓰레기인지는 몰라도 오스트리아와는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운송비만을 받고 매일 5천톤 이상의 쓰레기를 들여온다고 한다.

북한의 쓰레기 반입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피폐한 북한의 국토는 오염이 극에 이르러 되고 쓰레기 썩은 물이 밀려오는 호르는 땅위에서 곡식이 제대로 자랄 가망은 없는 것이다. 북한의 오염은 곧 남한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쓰레기는 남한의 안전에도 공극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영토는 공극적으로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할 민족의 영토인데 북한은 지금 처리에 수백년이 걸린다는 핵쓰레기를 마구 가져다 버리려고 있다. 이같은 논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쓰레기의 반입도 막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 나 젊어서도 북한이 핵폐기물과 쓰레기까지 도입하게 되었느냐는 북한은 정론도 일부 제기될 수 있다. 핵폐기물 반입 중단을 위해 살을 보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일지 모르며 이는 북한이 처한 문제에 합당한 처방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쌀을 가져다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한 두해의 흉년과 흉수 때문에 유래한 것이 아니라 북한지도층이 아니라 북한민들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북한 지도자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다.

국제적인 협조, 그린피스 등의 국제 단체들과의 협력방안 또한 여의치 않다. 북한에 쓰레기를 돈주며 팔고 있는 나라들의 면모를 보라.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들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그린피스는 몇몇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에만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라 원자력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필수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며 지금 북한에 40억불 상당의 핵발전소를 지어주고 있는 중이다.

정부 강력대응책 세워야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에 대한 대처는 강력하고 준엄한 것이어야 한다. 대만에 대한 강경대응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경수로 건설, 남북 협력 등의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 북한 지도층과 국제사회의 이기주의는 인도주의와 국제적 도덕성에 호소하기에는 아직도 그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준근 <政博·군사문제전문가>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안광석 <전각가>

내가 그 작자(作者)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설법할 때면 법문을 청하는 거상법사(覺法師)가 이래와 같은 계승(繼承)을 위하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 “我有一卷經，不因紙墨成，展開無一字，常放大光明”

有(以後)까지 또 만유와 더불어 존음(寸陰)도 분리해 따로 있지 않고 만유의 은연(隱顯)·기멸(起滅)에 증멸(增減)도 없는 그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아닌 무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한다.

이 마음은 우리가 물질상 대상을 하는 마음도 아니고, 또 사려(思慮)의 내용은 우리의 의식(意識)인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의식을 가르친 바도 아니다. 우주를 통칭할 때 수명(壽命)에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그 계승 가운데서 경(經)이라고 한 것이다. 독서의 요체는 이 경을 읽을 줄 알아야만 된다. 과거에 있어서도 말마디나 하고 간 선각자들은 누구도 이 경을 읽지 아니한 분은 한 분도 없다.

또 심불반조(心不反照)하면 간경무익(看經無益)이란 말이 있다. 경을 읽지 않는다면 독자로 자기가 마음의 경 원본(經源本)을 읽을 줄을 모를 때는 결국 영무세의 말을 흉내내는 것에

經의 근본을 읽자

너에게 경(經) 한 권이 있는데, 그 경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펴놓아도 글자는 한자도 없지만 항상 큰 빛을 발한다. 이 경은 사람마다 아니 사람마다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과 존재재일반(即存在在一般)이 실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이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일반(自然一般)에 의한 제일원리(第一原理)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만물에 함유(含有)된 신성(神性)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일승적(一乘的)인 원만무결(圓滿無缺)한 불성(佛性)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경을 이른 말이다.

만유이전(萬有以前)부터 만유이후(萬

불과한 것이다. 남이 적어 놓은 책을 읽고 자기 마음의 원본(原本)에 비추어 보다 계합(契合)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것을 간직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남이 한 말을 역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노릇이며 자신의 독창력을 말살시키는 비극을 저지르는 행위가 되고 만다.

남이 적어 놓은 글이 난해하다고 해서 슬퍼할 하등(下等)의 이유가 없다. 남의 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용이한 일이 아니라 또 보통의 공부로는 불가능하며 소승(所習)의 부문(部門)이 다르면 같은 글을 읽어도 이국어(異國語)를 읽는 것 같기 때문이다. 경 원본을 읽는 것이 곧 참회(懺悔)이다.

생활 속의 불교 108

제 손으로 펜 코뚜레에서 풀려나고 싶거든

“자기가 강도 짓고 불려려 가면 누가 죄 값을 치러야 하겠는가. 결국 자기가 했으므로 자기가 치러야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다라니 찾고 관세음보살 찾아가 관세음보살, 다라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다른 이름이니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서 부처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도 다라니도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가령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쌓으면 악업과 상쇄되는 것은 아닐까?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는데 죄값을의 철칙이다. 상쇄란 없다.

만일 선업과 악업의 상쇄가 가능하다면 부처님께 열심히 빌어서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보시를 많이 해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으며 관세음보살님 찾다 다라니를 염송해서라도 죄업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씨는 선한 씨대로 자라야 하고 악한 씨는 그것대로 또 썩지 않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느님이라도 안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일체의 괴로움, 온갖 번뇌는 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 열매로 익은 것이다. 고로 내가 거두어 들여야 한다. 만약 그걸 거두려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되질 않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은 철칙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고로 부처님 전에 엎드려 빌어도, 고백을 해도 사면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가령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쌓으면 악업과 상쇄되는 것은 아닐까?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는데 죄값을의 철칙이다. 상쇄란 없다.

만일 선업과 악업의 상쇄가 가능하다면 부처님께 열심히 빌어서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보시를 많이 해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으며 관세음보살님 찾다 다라니를 염송해서라도 죄업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씨는 선한 씨대로 자라야 하고 악한 씨는 그것대로 또 썩지 않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느님이라도 안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일체의 괴로움, 온갖 번뇌는 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 열매로 익은 것이다. 고로 내가 거두어 들여야 한다. 만약 그걸 거두려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었다가 더 많은 열매로 나를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업의 과일은 즐기면서 악업의 과일은 거두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부하고 괴로워한다.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남이 뿌린 씨앗이 내 열매로 다가오는 법은 절대로 없다. 그게 가능하다면 부처님께 빌어 죄업을 사면받는 예외도 가능해진다. 기록행위도 타락신앙도 다 맞는 얘기가 된다. 대신 불법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인과의 철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철칙같이 믿어야 한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하며 따라서 일체의 경계는 다 내 뜻이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철칙을 가르쳐 주시으로써 우리의 무명을 벗겨 주고자 하셨다. 부처님의 자비는 죄업을 사면해주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는 자비이다. 따라서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귀의하

는게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는 업의 당체가 텅 비었음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철칙을 말씀하신 한편으로 본래의 성품엔 업조차 불을 자리가 없음을 밝혀셨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본다면 인과의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고쳐 썼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가 다가오는 순간순간마다 발목이 잡혀서 절절한다. 모르기에 놓아버릴 줄도 모르고 놓아도 놓아지질 않는 것이다. 놓기는 커녕 경계마다 생각 생각을 지어 제 등짐으로 지고 간다. 마치 스스로 제 코뚜레를 꿰어 놓고서 풀려나고 음에 음메하는 것 같다.

그것이 싫다면 지심참회해야 한다. 마음 안의 부처에게 진심으로 귀의함으로써 업의 그물을 놓여 나아가야 한다. 매 경계마다에서 가르침을 사무치게, 뼈저리게 실천해야 한다.

협찬 : (故) 최홍남